

西周 한어의 ‘在’ 詞性 연구

- ‘在’와 ‘于’ 구조의 비교를 중심으로 -

허웨이*·장태원**

<目次>

I. 머리말	III. 《尙書》·金文과 卜辭의
II. 《尙書》·金文과 卜辭의	‘在’자 구조
‘于’자 구조	1. ‘V+在+處所/非處所’와
1. ‘V+于+處所/非處所’ 구문	‘V+O+在+處所’구문
2. ‘V+于+時間’ 구문	2. ‘在+處所/非處所’구문
3. ‘V+O+于+處所/非處所’	3. ‘在+時間’ 구문
구문	4. ‘在+處所+V+O’ 구문
4. ‘于+處所/非處所+V+O’	IV.西周 한어에서 ‘在’의 품사
구문	유형
	V. 결론

I. 머리말

학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사 ‘于’는 동사에서 변한 것으로, 商代에 ‘于’의 개사 기능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본다.¹⁾ 또한 上古 漢語에서 ‘于’자와 ‘在’자는 통사적 위치가 유사해 늘 서로 통용될 수 있다. 예

* 제1저자, 경북대학교 중문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중문과 교수

1) 郭錫良의 <介詞“于”의起源和發展>(《中國語文》, 1997年 第2期, 132쪽)과 裘錫圭의 <談談殷墟甲骨卜辭中的“于”>(《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復旦大學出版社, 2012年, 538쪽)에 보임.

를 들어, 劉起鈺가 《尚書·康誥》 중의 “裕乃身不廢在王命”(왕조가 너에게 준 사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에 나오는 ‘在’자를 ‘于’로 해석한 것과 崔永東이 西周 金文 《多友鼎》의 “.....命武公: ‘遣乃元士, 羞追于京師’。.....甲申之辰, 搏于紂,或搏于葬, 追搏于世.”(武公에게 그의 부하 元士를 보내 京師에서 獵豸를 쫓도록 명령했다.....甲申일의 아침, 紂 땅에서 獵豸와 격전을 벌였고, 후에 또 葬 땅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 후에 또 世 땅까지 쫓아가 싸웠다)에 나오는 “여러 개의 ‘于’자는 ‘在’로 풀이해야 한다.”고 여긴 것 등등이다.²⁾

上古 문헌 속의 ‘于’와 ‘在’는 상술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于’자를 늘 개사로도 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商代와 西周의 ‘在’자도 개사의 범주에 넣는다.³⁾

郭錫良은 진정한 개사 ‘在’는 漢代에 비로소 나타나고, 이전의 ‘在’는 동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 그러나 郭 선생은 春秋 시기 이전의 ‘在’자가 동사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본문은 《尚書》와 西周 金文을 西周 시기의 언어 자료로, 商代의 卜辭를 商代의 언어 자료로 삼아 《尚書》·金文과 卜辭 중의 ‘于’와 ‘在’의 각종 용법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기할 것이다: 西周 한어에서 ‘于’와 ‘在’의 통사 구조와 어휘 의미는 유사하지만 각자 수반하는 빈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들 빈어 상의 차이점으로 西周 한어에서 ‘于’와 ‘在’의 虛化 정도가 다르므로 인해 ‘于’는 개사로 볼 수 있지만 ‘在’는 동사로 봐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⁵⁾

2) 顧頡剛·劉起鈺의 《尚書校釋譯論》(中華書局, 2005, 1313쪽)과 崔永東의 《西周金文虛詞集釋》(中華書局, 1994, 17-18쪽)에 보임.

3) 陳夢家的 《殷墟卜辭綜述》은 ‘于’와 ‘在’는 동작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介詞로 보았다(123쪽). 喻遂生은 여러 가지 ‘在’와 ‘于’의 卜辭 예문을 대조하여 문장 속의 ‘在’는 개사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증명했다.(《甲骨文“在”字介詞用法例證》, 《古汉语研究》, 2002年 第4期, 51-52쪽) 張玉金的《西周漢語語法研究》도 ‘在’를 ‘于’와 같이 시간·처소·방위 등을 끌어들이는 개사로 보았다(130-157쪽).

4) 郭錫良, <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 1997年 第2期, 137쪽.

5) 본 논문은 《尚書》의 <大誥>·<康誥>·<酒誥>·<梓材>·<召誥>·<洛誥>·<多士>·<多方>·<立政>·<呂刑> 등의 편을 자료로 삼아 “于”자와 “在”자를 분석했다. 문장에서 말하는 《尚書》는 모두 이들 편을 말한다. 西周 金文과 殷墟 卜辭

설명의 편리를 위해 본문은 ‘于’와 그 뒤의 빈어를 ‘于’자 구조로 부르고, ‘在’와 그 뒤의 빈어를 ‘在’자 구조로 부른다. ‘于’자 구조나 ‘在’자 구조가 다른 동사 앞에 오면 이를 前置라고 하고, 다른 동사 뒤에 오면 後置라고 한다. ‘于’와 ‘在’가 수반하는 빈어로는 處所 빈어와 時間 빈어 외에 卜辭에는 祭祀對象 빈어도 있다. 이 祭祀對象 빈어는 抽象處所로도 볼 수 있고 抽象人物로도 볼 수 있는데, 處所 빈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따라서 본문은 祭祀對象을 處所빈어에 넣었다. ‘于’와 ‘在’가 수반하는 빈어 중에 人物이나 事物 등을 포함하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들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들 빈어를 非處所 빈어로 부른다. 非處所 빈어와 時間 빈어는 모두 處所 빈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非處所 빈어와 處所 빈어의 통사적 위치는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함께 설명하고, 時間 빈어의 통사적 위치는 處所 빈어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한다.

II. 《尙書》·金文과 卜辭의 ‘于’자 구조

‘于’자는 《尙書》와 金文에서 독립적으로 술어가 되는 용법은 없고, 대부분의 용례에서 ‘于’자 구조는 後置하거나 前置한다. 본문은 문장에서 ‘于’자 구조의 위치와 ‘于’자 뒤에 어떤 빈어를 수반하는지에 근거해 ‘于’자 구조를 ‘V+于+處所/非處所’·‘V+于+時間’·‘V+O+于+處所/非處所’·‘于+處所/非處所+V+O’ 네 가지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구문에서 V는 어떤 동작 동사를 나타내고, O는 이 동사가 수반하는 빈어이다. 아래는 卜辭와 결합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자료는 주로 臺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金文工作室이 만든 《先秦甲骨金文簡牘詞彙資料庫》(<http://inscription.sinica.edu.tw>)을 참고했다.

1. ‘V+于+處所/非處所’ 구문

‘V+于+處所/非處所’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세 예문은 西周의 언어 자료이고, 뒤의 두 예문은 商代의 언어자료이다.

- ① 盡執拘以歸于周，予其殺。 《尚書·酒誥》
- 모조리 체포하여 周나라의 도성으로 보내, 나는 그들을 죽일 것이다.
- ② 其丕能誠于小民。 《尚書·召誥》
- 그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 ③ 初戾和于政，上帝降懿德大畀。 《史牆盤銘》
- (文王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단합시킬 수 있어 하늘은 그에게 훌륭한 독행과 그를 보좌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들을 내리셨소.
- ④ 其往于夔，無咎。 《小屯南地甲骨》 2123
- 夔 땅에 가면, 우환이 생기지 않겠지요?
- ⑤ 貞：侑于妣己。 《甲骨文合集》 00249
- 妣己의 종묘에서 侑祭를 행해야 합니까?

예문 ①의 ‘周’는 ‘于’의 處所 빈어에 속하고, 예문 ②의 ‘小民’과 예문 ③의 ‘政’은 각각 人物 빈어와 事物 빈어여서, 모두 ‘于’의 非處所 빈어이다. 예문 ④의 ‘夔’는 ‘于’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⑤의 ‘侑’는 祭祀류 동사인데 대응하는 ‘妣己’는 祭祀對象에 속한다. 본문은 이 祭祀對象을 ‘于’의 抽象處所 빈어로 보고 계속 處所 빈어의 범주에 넣었다.

2. ‘V+于+時間’ 구문

‘V+于+時間’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두 예문은 西周의 언어 자료이고, 뒤의 예문은 商代의 언어 자료이다.

- ⑥ 故我至于今克受殷之命。 《尚書·酒誥》
- 그래서 우리 周나라가 지금까지 殷나라가 받은 천명을 계승할 수 있었다.
- ⑦ 其至于子孙其萬年永寶用。 《叔豐簋銘》
- 자손들이 만년까지 줄곧 누리게 하다.
- ⑧ 辛巳卜：其燎于七月。 《甲古文合集》33348
- 7월에 燎祭를 올릴 수 있습니까?

'V+于+時間'구문은 卜辭에는 잘 보이지 않고, 《尚書》와 金文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尚書》와 金文의 용법은 卜辭와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卜辭에서 '于'가 수반하는 時間 빈어는 예문 8의 '七月'처럼 대부분 시간사인 반면, 《尚書》와 金文에서 '于'가 수반하는 時間 빈어는 예문 6의 '今'과 예문 7의 '子孫'처럼 어떤 시간만 대체로 가리킨다. 둘째, 예문으로 보면, 卜辭에서 '于+時間' 앞에는 祭祀류 동사를 수반할 수 있어 전체 문장이 동작이 어떤 시간에 나타났음을 나타낸다. 《尚書》와 金文에서 '于'가 時間 빈어를 수반할 때는 '至于+時間' 용법 한 가지만 보이는데, 전체 문장은 어떤 하나의 행위가 미치는 대략적인 시간 범위를 나타낸다.

3. 'V+O+于+處所/非處所' 구문

'V+O+于+處所/非處所'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세 예문은 西周的 언어 자료이고, 뒤의 두 예문은 商代의 언어 자료이다.

- ⑨ 周公初基，作新大邑于東國洛。 《尚書·康誥》
- 周公은 동쪽의 洛陽에 새로운 대도시를 짓기 시작했다.
- ⑩ 不肯感言于民。 《尚書·多方》
- 좋은 말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는다.
- ⑪ 王降征令于大保。 《大保簋銘》
- 周나라 왕이 大保에게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⑫ 丙戌伐人方于筭，吉。 《英國所藏甲骨》 2526
- 丙戌일에 만일 筭地로 人方을 치러간다면, 대체로吉할 것입니다.
- ⑬ 禱婦好于父乙。 《甲古文合集》 2634
- 婦好의 일로 父乙에게 禱祭를 올리면 좋겠습니까?

예문 ⑨의 ‘東国洛’은 ‘于’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⑩의 ‘民’과 예문 ⑪의 ‘大保’는 ‘于’의 人物류 非處所 빈어이다. 예문 ⑫의 ‘筭’은 ‘于’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⑬의 ‘父乙’은 祭祀對象으로, ‘于’의 抽象處所 빈어이다.

4. ‘于+處所/非處所+V+O’ 구문

‘于+處所/非處所+V+O’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세 예문이 西周의 언어자료이고, 뒤의 두 예문이 商代의 언어자료이다.

- ⑭ 予亦念天即于殷大戾，肆不正。 《尚書·多士》
- 나는 하늘이 이미 단호하게 殷나라를 벌한 것을 보았기에 더 이상 그대들을 치지 않을 것이다.
- ⑮ 惟弔茲，不于我政人得罪。 《尚書·康誥》
- 이런 행위를 목과하고 관리들이 처벌하지 않는다.
- ⑯ 于朕考庸季易父秩宗。 《師 鼎銘》
-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庸季易을 제사지내는데 쓴다.
- ⑰ 于宮田，無灾。 《甲古文合集》29012
- 궁에서 사냥하면 화가 생기지 않겠지요?
- ⑱ 貞于祖辛侑。 《甲古文合集》00776
- 祖辛의 종묘에서 侑祭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예문 ⑭의 ‘殷’은 ‘于’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⑮의 ‘我政人’과 예문 ⑯의 ‘朕考庸季易父’는 ‘于’의 人物류 非處所 빈어이다. 예문 ⑰의 ‘宮’은 ‘于’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⑱의 ‘祖辛’은 祭祀對象류 抽象處所 빈어이다. 《尚書》에서 네 종류의 ‘于’자 구조가 쓰인 횟수를 통계내면 아래의 표

와 같다.

<표 1> ‘于’자 구조

V+于+處所/非處所	V+于+時間	V+O+于+處所/非處所	于+處所/非處所+V+O
15 / 64	4	19 / 16	2 / 5

이 네 가지 유형의 ‘于’자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尙書》와 金文의 이 네 가지 구문은 卜辭에서 이미 출현하였다. 商代에서 西周까지 구문 그 자체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于”의 빈어에만 변화가 일어났다. ‘于’자의 빈어는 대략 處所 → 祭祀對象(抽象處所/抽象人物) → 人物 / 事物의 변화를 거쳤다. 祭祀對象은 경우에 따라 抽象處所로 볼 수도 있고 抽象人物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토대에서 西周 시기에 ‘于’ 뒤에 구체적인 人物과 事物 빈어가 나타났다. 둘째, ‘V+于+非處所’는 ‘V+于+處所’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며, 《尙書》의 ‘V+于+非處所’ 구문은 ‘V+于+處所’ 구문보다 용례가 더 많이 보인다. 셋째, ‘V+于+時間’에서 ‘于’ 앞의 동사는 ‘至’만 오는데, 이는 ‘V+于+時間’의 용법이 西周 시기에 큰 제약을 받아 사용 횟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음을 말한다. 넷째, 《尙書》와 金文에서 ‘于’자 구조가 後置되는 용례가 前置되는 용례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卜辭의 영향을 받았다.

III. 《尙書》·金文과 卜辭의 ‘在’자 구조

본문은 문장에서 ‘在’자구조의 위치와 ‘在’자 뒤에 어떤 빈어가 수반되는 지에 근거하여 《尙書》와 金文 중의 ‘在’자 구조를 ‘V+在+處所/非處所’·‘V+O+在+處所’·‘在+處所/非處所’·‘在+時間’·‘在+處所+V+O’ 다섯 가지 구문의 유형으로 귀납하였다. 구문에서 V는 어떤 하나의 동작 동사를 말하고, O는 이 동사가 수반하는 빈어를 말한다. 아래는 卜辭와 결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한 것이다.

1. ‘V+在+處所/非處所’와 ‘V+O+在+處所’ 구문

‘V+在+處所/非處所’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예문 네 개는 西周的 언어 자료이고, 뒤의 예문 두 개는 商代의 언어 자료이다.

- ①9 永不忘在王家。 《尚書·酒誥》
- 周나라 왕실도 그대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 ②0 夏迪簡在王庭，有服在百僚。 《尚書·多士》
- 夏나라 사람 중에 불려서 商나라 왕의 조정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백관들 중에서 관직을 맡았다.
- ②1 其惟王位在德元。 《尚書·召誥》
- 왕께서 곧은 덕에 서셨다.
- ②2 汝毋敢弛在乃服。 《毛公鼎銘》
- 그대는 그대의 직위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 ②3 王其獲在萬鹿。 《甲古文合集》 10951
- 왕이 萬鹿에서 사료잡을 수 있을까?
- ②4 其禱在父甲，王受祐。 《甲古文合集》 27370
- 父甲의 종묘에서 기도하면, 왕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예문 ①9의 ‘王家’는 ‘在’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②0의 ‘百僚’와 예문 ②2의 ‘乃服’은 문장에서 抽象處所로 쓰였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를 여전히 ‘在’의 處所 빈어로 본다. 예문 ②1의 ‘德元’은 抽象事物로, ‘在’의 非處所 빈어이다. 金文에는 《尚書》에서처럼 抽象事物이 빈어가 되는 용례가 없다. 예문 ②3의 ‘萬鹿’은 ‘在’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②4의 ‘父甲’은 ‘在’의 抽象處所 빈어이다.

‘V+O+在+處所’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앞의 두 예문은 西周的 예문이고, 뒤의 두 예문은 商代의 예문이다.

- ㉕ 乃穆考文王肇国在西土。 《尚書·酒誥》
 - 文王이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은 서부지방이다.
- ㉖ 尸毋動余一人在位。 《毛公鼎銘》
 - 시종일관 나의 왕위를 흔들지 않게 하였다.
- ㉗ 王曰貞有兕在行，其左射𠄎。 《甲骨文合集》24391
 - 길에 무소가 있는데, 왼쪽에서 쏘면 좋을까요?
- ㉘ 其禱年在毓，王受年。 《甲骨文合集》28274
 - 만일 后祖의 위패 앞에서 수학하는 일을 기도하면, 대왕께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을까요?

예문 ㉕의 ‘西土’는 ‘在’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㉖의 ‘位’는 抽象處所로 쓰였기 때문에 여전히 ‘在’의 處所 빈어로 본다. 《尚書》와 金文에서는 ‘在’ 뒤에 人物이나 事物류 같은 非處所 빈어가 없고, ‘V+O+在+處所’의 용법만 있다. 예문 ㉗의 ‘行’은 ‘在’의 處所 빈어이고, 예문 ㉘의 ‘毓’은 ‘在’의 抽象處所 빈어이다.

이상 《尚書》와 金文의 두 구문은 卜辭에서 이미 나타났다. 卜辭에서 ‘在’ 뒤의 빈어는 實際處所와 抽象處所를 포함하는데 모두 處所 빈어의 범주에 속한다. 《尚書》와 金文에서 ‘在’ 뒤의 빈어도 주로 處所 빈어나 抽象處所 빈어가 온다. 예문 ㉕에서 ‘在’ 뒤에 非處所 빈어인 ‘德元’을 수반한 용법은 후인들의 개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예를 제외하면, 西周 시기의 ‘V+在+處所’와 ‘V+O+在+處所’ 구문은 商代의 ‘V+在+處所’와 ‘V+O+在+處所’ 구문과 비교해서 그리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卜辭에서는 ‘在’ 뒤에 祭祀對象류 빈어를 수반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于’ 뒤에 祭祀對象류 빈어를 수반하는 용법과 같다. 西周 시기 ‘于’자의 빈어는 祭祀對象의 토대에서 더 나아가 人物과 事物류의 非處所 빈어를 파생시켰으나 ‘在’자는 祭祀對象의 토대에서 유사한 非處所 빈어를 파생시키지 않았다. 아래에서 도표를 통해 ‘于’자 구조와 ‘在’자 구조가 後置할 때 ‘于’와 ‘在’가 수반하는 빈어의 변화과정을 비교 설명해본다.

于+處所 → 于+祭祀對象(抽象處所/抽象人物) → 于+人物 / 事物
 在+處所 → 在+祭祀對象(抽象處所/抽象人物) → 在+抽象處所

祭祀對象은 抽象處所로도 볼 수 있고, 抽象人物로도 볼 수 있다. 西周 시기 ‘于’ 뒤의 빈어는 祭祀對象류 빈어에서 人物과 事物류 非處所 빈어를 파생시켰다. 반면 ‘在’ 뒤의 빈어는 祭祀對象류 빈어에서 다른 抽象處所 빈어로 파생시켰지만 이들 抽象處所 빈어는 여전히 處所 빈어의 범주에 있다.

2. ‘在+處所/非處所’ 구문

‘在+處所/非處所’ 구문의 예문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예문 네 개는 모두 西周的 언어 자료이다.

- ㉘ 亦惟在王宮邦君室。 《尚書·大誥》
 - 우리 왕조의 궁정과 왕족 및 제후들의 집안에서 일어났다.
- ㉙ 怨不在大, 亦不在小。 《尚書·康誥》
 - 백성들의 원망은 대소에 있지 않다.
- ㉚ 皇考嚴在上, 異在下。 《虢叔旅鐘銘》
 - 선왕과 선조께서 위에 계시어 아래 사람들을 보우하신다.
- ㉛ 昔在爾考公氏, 克弼文王。 《何尊銘》
 - 이전에 그대의 선조 公氏가 文王을 열심히 보필했다.

예문 ㉘의 ‘王宮邦君室’은 實際處所를 나타내고, 예문 ㉚의 ‘上’과 ‘下’는 抽象處所여서 모두 ‘在’의 處所 빈어로 본다. 예문 ㉙의 ‘大’·‘小’와 예문 ㉛의 ‘爾考公氏’는 ‘在’의 非處所 빈어인데, 이들 非處所 빈어는 事物과 人物 두 종류를 포함한다. ‘在+非處所’는 ‘在+處所’ 용법이 파생된 것으로 ‘在’의 어휘 의미·문법 기능과 같다. ‘在+處所/非處所’가 다른 동사성 성분이 없이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이런 용법은 西周 때에야 나타나는 언

어 현상이다.

卜辭에는 ‘在’자 구조가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용법은 없지만 ‘在+處所’와 그 앞의 동사 사이를 다른 성분이 갈라놓은 문장 형식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㉓ 貞，弗其擒九月在鯀。 《甲古文合集》 10994

- 9월에 鯀에서는 사로 잡지 않을 것이다.

㉔ 乙巳卜，爭貞，燎于河五牛沈十牛十月在鬪。 《甲古文合集》 14553

- 10월에 鬪에서 五牛沈十牛로 황하의 신에게서 燎祭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예문 ㉓의 ‘在鯀’는 동사 ‘擒’ 뒤에 쓰였고, ‘在鯀’와 ‘擒’ 사이에 ‘九月’이라는 시간사가 있다. 예문 ㉔의 동사 ‘燎’는 뒤에 ‘于河’를 수반하면서 ‘五牛沈十牛’도 수반했다. 그 뒤에는 동작이 발생한 시간이 ‘十月’이라는 것과 동작이 발생한 장소가 ‘在鬪’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 두 예문에서 ‘在’자 구조와 앞쪽 동사는 다른 성분에 의해 갈라져 있다. 이는 늘 어떤 동사나 動賓 구조 뒤에 바짝 따라 나오는 ‘于’자 구조와 비교할 때, 卜辭의 ‘在’자 구조는 앞쪽 동사 혹은 動賓 구조 사이의 의미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다는 것을 말한다.

3. ‘在+時間’ 구문

‘在+時間’ 구문은 《尚書》와 金文에 위치상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장 끝에 위치한다. 이 용법은 商代 말기의 卜辭에서 많이 보이는데 西周 초기의 金文에서도 같은 서사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㉕ 王命周公後，作冊逸誥，在十有二月。 《尚書·洛誥》

- 왕이 周公에게 洛邑에 남도록 명하고, 作冊逸에게 이를 알렸는데, 12월이었다.

- ㉞ 作厥祖宝_𠄎彝, 在十月。 《殷周金文集成》 03749
- 선조를 기념하는 청동기물을 만들었는데, 11월이었다.
- ㉟ 丙子卜, 王貞, 其有_𠄎, 在二月。 《甲骨文合集》 22765
- 재단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2월에 점을 본 것이다.

이곳의 ‘在+時間’은 전편이 쓰인 시간을 말하기 위함이지 앞쪽의 동사와는 어떤 의미 관계가 없는 하나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조이다. “在+時間”의 또 다른 위치는 문두에 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在今後嗣王誕罔顯于天。 《尚書·多士》
- 지금의 紂王은 하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있다.
- ㉢ 在戊辰, 燕侯賜伯矩貝。 《伯矩鬲銘》
- 戊辰일에 燕侯가 伯矩에게 貝를 하사했다.
- ㉣ 辰在乙亥, 王在_𠄎京。 《歸_𠄎鼎銘》
- 乙亥일 이날, 임금은 _𠄎京에 있었다.

商代 卜辭에는 “甲申卜, 殷貞, 在春宜田京”(《甲骨文合集》8181)과 같은 ‘在+時間+V+O’ 용법이 있지만 西周의 문두에 위치하는 ‘在+時間’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西周의 ‘在+時間’은 문두에 올 때 뒤쪽의 동사 앞에 항상 주어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의 ‘在今’ 뒤쪽에는 동사구 ‘(誕罔)顯’이 있고, 이 동사구의 주어는 ‘後嗣王’이다. 예문 ㉢의 ‘在戊辰’ 뒤쪽에는 동사 ‘賜’가 있고, ‘賜’ 앞쪽에는 주어 ‘燕侯’를 수반했다. ‘在’ 앞에는 예문 ㉣의 ‘辰在乙亥’처럼 간혹 시간을 나타내는 ‘辰’자가 있다. 이 세 예문에서 ‘在+時間’은 하나의 독립된 구조를 더 닮았는데, 앞의 3.2에서의 ‘在+處所/非處所’ 구문과 유사하다. 반면 卜辭의 ‘在+時間+V+O’ 구문에는 이런 언어 현상이 없다.

4. ‘在+處所+V+O’ 구문

이 구문에서는 ‘在’ 뒤에 非處所 빈어의 예문은 없다. 앞의 두 예문은 西周의 예문이고, 뒤의 예문은 商代의 예문이다.

- ④① 王在新邑烝祭歲。 《尚書·洛誥》
- 成王은 새로 지은 洛邑에서 겨울 제사를 지냈다.
- ④② 康侯在朽師賜作冊寔貝。 《作冊寔鼎》
- 康侯는 朽師에서 作冊 寔에게 상으로 貝를 하사했다.
- ④③ 在嬖田，有正雨。 《甲骨文合集》10136
- 만일 “嬖”에서 사냥한다면, “正雨”가 있을까?

이 세 예문만 보면 모두 ‘在+處所+V+O’ 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金文의 어떤 용례와 비교해보면 金文의 ‘在+處所+V+O’ 구문은 卜辭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④④ 王在周師量宮，旦，王各大室，即位。 《大師虘簋銘》
- 왕이 周師의 量宮에 있었다. 아침에 왕이 大室에 들어가 왕위에 앉았다.
- ④⑤ 在周師錄宮，旦，王各大室，即位。 《師俞簋蓋銘》
- 周師의 錄宮에 있었다. 아침에 왕이 大室에 들어가 왕위에 앉았다.
- ④⑥ 王在周，各大室，即位。 《走簋銘》
- 왕이 周에 있어서 大室에 들어가 왕위에 앉았다.

이 세 가지 예문은 모두 “왕이 어떤 곳에서 大室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예문 ④④에서 ‘在’와 ‘各’ 앞에 각각 하나의 주어인 ‘王’이 있고, 게다가 문중에는 또 시간을 나타내는 ‘旦’자가 끼어 들어가 있다. ‘王在周師量宮’와 ‘王各大室’는 각각 ‘주어·술어·빈어’를 포함한 독립적 문장이다. 예문 ④⑤에서는 ‘在周師錄宮’과 뒤쪽의 동사 ‘各’ 사이를 ‘旦’과 ‘各’의 주어인 ‘王’이 갈라놓고 있어 이곳의 ‘在周師錄宮’도 독립된 動賓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두 예문으로 예문 ④을 보면, ‘在周’와 ‘各大室’도 상대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구조로 봐야 한다. 西周 한어에서 ‘在+處所’와 ‘V+O’ 이 두 구조 사이에는 각자의 주어 수반할 수 있다.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尙書》·金文의 ‘在+處所+V+O’ 구문은 ‘在+處所, V+O’로 봐야 한다.

卜辭의 ‘在+處所+V+O’ 구문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在+時間+V+O’·‘于+處所+V+O’ 구문과 같은 문법기능을 갖고 있다. 즉 ‘在+處所’·‘在+時間’과 ‘于+處所’가 ‘V+O’ 앞에 오는 것은 이들 내용을 전체 문장의 焦點으로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在+處所’·‘在+時間’와 ‘于+處所’는 독립된 구조로 볼 수 없다.

《尙書》에서 다섯 유형의 ‘在’자 구조가 쓰인 횟수를 통계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在”자 구조

V+在+處所/非處所	V+O+在+處所	在+處所/非處所	在+時間	在+處所+V+O
5 / 1	4	9 / 5	前置:5 / 後置:1	1

IV. 西周 한어에서 ‘在’의 품사 유형

본문에서는 앞의 <표 1>의 ‘于’자 구조가 쓰인 통계와 <표 2>의 ‘在’자 구조가 쓰인 통계를 결합하여 西周 시기 ‘在’의 품사 유형을 분석해본다.

첫째, 두 표의 ‘于’자 구조와 ‘在’자 구조에서 ‘V+于+處所’와 ‘V+在+處所’ 구문·‘V+O+于+處所’와 ‘V+O+在+處所’ 구문·‘于+處所+V+O’와 ‘在+處所+V+O’ 구문은 각각 구조가 같은 구문이다. 이 세 구문에서 ‘于’자 구조의 용례가 각각 같은 구문의 ‘在’자 구조에 보이는 용례보다 많았는데, 이는 ‘于’자와 비교해서 ‘在’자가 더 늦게 나타난 단어임을 보여준다.

둘째, 西周 시기 ‘于’자가 수반하는 빈어가 더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같은 구문에서 “于”자는 處所 빈어를 수반할 수 있고 人物이나 事

物류의 非處所 빈어도 수반할 수 있는 반면 ‘在’는 處所 빈어만 수반했다. 이것은 西周 한어에서 ‘在’자의 虛化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 ‘在’자 구조의 이 세 구문은 ‘于’자 구조의 구문과 같지만 商代 卜辭든 西周의 《尚書》·金文이든 ‘于’자 구조는 늘 어떤 동사나 動賓 구조 뒤나 앞에 바짝 따라온다. 이는 ‘于’자가 商代, 특히 西周 시기에 虛化 정도가 이미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문장에서 다른 동사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개사로 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商代 卜辭의 ‘V+O+在+處所’ 구문에서 ‘在+處所’와 앞의 動賓 구조 사이에는 다른 성분을 넣을 수 있고(예문 ③, ④), 西周 金文의 ‘在+處所+V+O’ 구문에서도 ‘在+處所’와 뒤쪽의 動賓 구조 사이에 다른 성분을 넣을 수 있다(예문 ④, ⑤). 이는 ‘在+處所’가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動賓 구조와 의미 관계가 아주 느슨해져 이 動賓 구조를 벗어났어도 ‘在+處所’의 의미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在+處所’가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이 세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西周 시기 ‘V+在+處所’·‘V+O+在+處所’·‘在+處所+V+O’ 구문의 ‘在’자는 여전히 동사이고, ‘在+處所/非處所’와 ‘在+時間’ 구문 중의 ‘在’는 동사적 특성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동사라고 봐야한다.

V. 결 론

《尚書》·金文과 商代 卜辭의 비교를 통해 본문은 ‘在’자 구조가 商代에서 西周까지의 발전 과정이 ‘于’자 구조와 결코 같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于’자 구조의 변화는 줄곧 ‘V+于+~’·‘V+O+于+~’와 ‘于+~+V+O’구문에서 일어났고, ‘于’ 뒤의 빈어는 處所→祭祀對象(抽象處所/抽象人物)→人物/事物로 변화를 거쳤지만 구문 자체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于”자의 용법이 西周 이전에 이미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어가 변함에 따라 ‘于’자는 구문에서 점차 개사로 虛化되었다. 商代에서 西周까지 ‘V+在+~’와 ‘V+O+在+~’ 구문에서 ‘在’ 뒤 쪽의 빈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處所 빈어 한 가지 유형만 있었다. 이것은 ‘在’자의 虛化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尚書》와 金文의 ‘在+處所/非處所/時間’은 왕왕 하나의 독립된 구조로 볼 수 있어 ‘在’자의 동사적 특징이 아주 두드러졌다. 西周 때에는 ‘在+~+V+O’ 구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후대의 ‘在+~+V+O’ 구문은 西周的 ‘在+處所, V+O’ 용법의 토대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在’자 구조의 이런 특징들은 西周 한어에서 ‘在’자는 아직 개사가 될 조건을 갖추지 못해 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References>

1. Guo Xilia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reposition ‘于’”, *Zhongguo Yuwen*, 1997. Vol.2.
2. Qiu Xigui, “Study of ‘于’ in Oracle Bone Inscriptions from the Ruins of Yin”, *the Collected Works of Qiu Xigui*, Fudan University Press, 2012.
3. Gu Jigang·Liu Qiyu, *Shangshu Proofreading and Interpretation*, Zhonghua Book Company, 2005.
4. Cui Yongdong, *Function Words of Western Zhou JINWEN*, Zhonghua Book Company, 1994.
5. Chen Mengjia,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divination inscriptions from the Ruins of Yin*, Zhonghua Book Company, 1988.
6. Yu Suisheng, “Illustrations of ‘Zai’(在) As a Preposition in Inscriptions on Bones or Tortoise Shells”, *Research In Ancient Chinese Language*, 2002, Vol.4.

7. Zhang Yujin, *Grammar Research of Western Zhou Chinese*, The Commercial Press, 2004.

<참고문헌>

1. 郭錫良, <介詞‘于’的起源和發展>, 《中國語文》, 1997年 第2期.
2. 裘錫圭, <談談殷墟甲骨卜辭中的‘于’>, 《裘錫圭學術文集·甲骨文卷》, 復旦大學出版社, 2012.
3. 顧頡剛·劉起鈞, 《尚書校釋譯論》, 中華書局, 2005.
4. 崔永東, 《兩周金文虛詞集釋》, 中華書局, 1994.
5.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中華書局, 1988.
6. 喻遂生, <甲骨文‘在’字介詞用法例證>, 《古漢語研究》, 2002年 第4期.
7. 張玉金, 《西周漢語語法研究》, 商務印書館, 2004.

<Abstract>

The change of sentence patterns in ‘于’ sentence only occurred in the ‘V+于+~’·‘V+O+于+~’ and ‘于+~V+O’. The object after ‘于’ changed in the process of ‘Location → Object of Sacrifice(Abstract Location / Abstract Person) → Person / Thing’. As a result, the whole structure of the sentence did not change. This explains that the usage of ‘于’ was fixed before Western Zhou dynasty. As the object changes, ‘于’ had changed from verb to preposition.

However, from Shang dynasty to Western Zhou dynasty, the object after ‘在’ had not changed in ‘V+在+~’ and ‘V+O+在+~’ sentence patterns, but there existed only one type of object: location object. This

shows that ‘在’ did not change grammatically. In addition, since ‘在+Location)/Non-Location)/Time’ structure was separable from verb, the structure was regarded as independent structure in *Shang Shu* and *Bronze Inscriptions*. ‘在+~+V+O’ structure had not appeared in Western Zhou dynasty. ‘在+~+V+O’ in the future generation was originated from ‘在+處所, V+O’ structure in Western Zhou dynasty. In this structure, ‘在’ had the feature of verb. This shows that ‘在’ was accepted as verb rather than preposition by Western Zhou dynasty.

Key Words : ‘在’字結構(sentence of “在”), ‘于’字結構(sentence of “于”),
西周漢語(Western Zhou Chinese), 虛化(grammaticalization),
詞性(word class)